

하루 만에 흔들리는 휴전...호르무즈·레바논 두고 '배격'

이스라엘, 헤즈볼라 계속 공습...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위협 맞불
우라늄 농축 등 쟁점 이견 큰 가운데 첫 협상은 계속 추진되는듯

미국과 이란이 휴전 발표 바로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 상대방의 합의 위반에 대해 경고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휴전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란은 특히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이 약속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도 휴전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등 불안정한 휴전 속에서도 대화는 일단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후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 쟁점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레바논 공격이다.

이스라엘군은 8일 레바논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는데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거의 900명이 부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면서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를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란은 레바논 공습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압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8일 미국이

"휴전 또는 이스라엘을 통한 계속된 전쟁"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고, 이란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휴전 합의를 이미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도 9일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휴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계속됐다.

그러나 미국은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8일 헝가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돕기 위해 휴전 기간에는 레바논 공습을 "좀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첫 협상을 한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를 고려하면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로 묘사하고, 이란이 미국이 이미 수용했



베이루트 공습 8일(현지시간) 베이루트 탈랏 알-카아트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한 현장에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모여 있다. 레바논 보건부의 최신 집계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112명이 사망하고 837명이 부상당했다. /AFP=연합뉴스

다고 주장하는 '10개항 종전안'에 대한 설명이 서로 배치된다.

이란은 종전안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계속 통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

은 요구다. 이란은 휴전 합의의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서두르기는커녕 언제든지 다시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협 통행은 휴전 합의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란이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협상 개방 여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뒤로 협상을 통한 "모든 선박 통행"이 중단됐다고 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창시자' NYT, 영국 암호학자 지목

"사토시"와 문체 일치·활동 시기 맞물려

17년째 베일에 싸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두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암호학자 애덤 백(55)을 유력 인물로 지목했다.

NYT 탐사보도 전문 존 캐리루 기사는 18개월 간의 정밀 분석 끝에 애덤 백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수천건과 이메일을 정밀 분석했다.

특히 컴퓨터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사토시가 사용한 독특한 영국식 영어 철자와 글쓰기 습관이 백의 것과 67곳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이픈(-)'을 특정 위치에 사용하는 습관이

나 영국식 철자를 혼용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이다.

NYT는 백이 1990년대 무정부주의자 집단인 '사이퍼링크' 회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정부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구상을 밝힌 점도 짚었다.

기술적 배경도 언급됐다. 비트코인 기술 기업 '블록스트림'의 창업자인 백은 1997년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의 기초가 된 '해시캐시'를 발명한 인물이다.

NYT는 백이 비트코인 출시 10년 전 이미 관련 설계 방식을 구상했다는 점과, 그가 온라인에서 종적을 감췄던 시기가 사토시의 활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목된 당사자인 백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아르테미스 2호' 남은 임무는 무사귀환...고온 견딜 차폐막 관건

미국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아르테미스II)가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무사귀환만 남겨놓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8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II' 우주비행사들의 비행 8일 차 임무를 설명하면서 지구 재진입을 위한 장비 정리 및 좌석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열 차폐막을 시범 삼아 펼쳐 보려고 계획했지만, 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테미스II'의 유인 캡슐인 오리온은 오는 10일 오후 8시 7분(동부시간 기준) 샌디에이고 연안 해상에 도착할 예정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 귀환은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임무'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기권 재진입 속도는 시속 4만2344km로, '아폴로 10호'의 시속 3만9천877km보다도 빠르게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 외부

는 섭씨 2천7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게 된다. 특히 아르테미스 오리온 캡슐은 이 단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CNN은 지적했다.

2022년 무인 달 탐사선인 '아르테미스I' 귀환당시 오리온 차폐막에 움푹 파인 흔적들과 균열이 가 득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II'는 열 차폐막을 다르게 제작했으며, 대기권 진입 경로도 종전과 다르게 짰다. 정확한 도착 지점을 맞추기 위해 대기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는 이른바 '스킵' 기동을 건너뛰고 그대로 지구에 귀환할 예정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해상 도착에 적합한 날씨는 시속 287마일(46km) 미만의 풍속과 높이 6피트(1.8m) 미만의 파고, 도착 지점 30해리 내 비가 내리거나 번개가 치지 않는 것이다.

오리온 캡슐이 바다에 도착하면 미해군 존 P. 머사함이 우주비행사들을 태워 육지로 돌아오

다. 이 과정에 헬리콥터 4대도 함께 동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자민당, 국회서 개헌 논의 시동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대승을 토대로 개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9일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 회에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자위대 명기틀 비롯 자민당이 주장하는 개헌 관련 4항목을 제시한 뒤 논점이 정리된 주제부터 차례로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자민당이 주장해온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총실 등 4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